■ 불교사회연구소 '불교와 대통령~' 종책토론 현장

"종교편향 근원은 이승만"

'오늘 대통령 선서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한층 더 결심하며 맹세합니다.' 1948년 7월24일 대한민국 초대 정부통령 취임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했던 내용의 일부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 '서울시 봉헌' 구설수나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특정종교 두둔 발언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개신교 중심의 종교편향. 근원적 책임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불교와 대통령 이승만'을 주제로 한 제6차 종책토론회를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최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승만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이 일자, 불교계의 입장에서 그의 공과를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이재헌 서울대 강사는 철저한 개신교적 가치관으로 나라를 운영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보, 이승만 정권에 기대 교세를 대폭 확장하며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한국 개신교, 이들의 득세와 차별로 혼란과 갈등을 겪은 불교의 지난날을 조명했다.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지 1년여 뒤인 1949년 11월, 이승만은 미국 감리교의 선교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발전에 대한 모든 희망을 기독교운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운동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재헌 씨는 "이승만은 반대 여론은 개의치 않고, 그의 의지에 따라 개신교를 사실상의 국가종교로 만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의 친기독교 정책은 해방 후 미군정의 기조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크리스마스의 국경일 지정 △형목(刑牧) 제도 신설을 통한 교도소 교화사업의 기독교 전담 △서울중앙방송을 통한 선교방송화 △일요일의 공휴일화 추진 등이 정책적 사례다. 이 씨는 "미군정과 제1공화국의 기독교 우대정책으로 말미암아 해방 직후 남한 전체 인구의 2~3%에 불과했던 기독교 인구가 1960년에는 7.5%에 달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신교를 제외한 종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심지어 같은 계열인 가톨릭도 마찬가지였다. 무엇보다 1700년 동안 민족과 고락을 함께해온 불교에 대한 견제가 유독 심했다. 이승만의 유시로 촉발된 불교정화운동 역시 정치적 함수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왜색불교를 타파하고 청정비구 중심의 한국불교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있었던 것은

이재헌 서울대 강사

"반대 여론 개의치 않고 그의 의지대로 개신교를 국가종교로 만들어갔다"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

"정화운동의 부작용 이승만에게만 전가하면 비겁한 역사인식…"

자성의 목소리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 저항의 필요성 보여주는 교훈도 남겨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었다"는 것이다. 사사오입 개헌 파동으로 야기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여론 호도용 전략이었다는 논리도 펼쳤다. 무엇보다 '불교는 분규집단'이란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훗날 10·27법난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재헌 강사는 "이승만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한 전략으로 기독교 세력을 정치적 기반으로 육성했고, 다른 종교들은 많은 제재를 가하고 분열을 유도하는 등 종교집단을 적절히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이승만에 의해 뿌리내려진 종교갈등을 질타했다. 김종인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도 "이승만 정권이 얼마나 기독교 편향적이었으며, 이승만 스스로 얼마나 노골적으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종교편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술회했다.

아울러 이승만과 개신교에 대한 비판은 불교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확대됐다. 발제에 따르면 이승만은 어느 장로 대통령보다도 노골적인 종교편향을 저질렀지만,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지 않았다. 김종인 교수는 불교계의 정치적 의식 빈곤을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권의 종교편향이 문제가 되어 2008년 8·27 범불교도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불교인들은 종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정치권력과 한국사회의 종교편향에 대해 항의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이성적인 개신교인들이 바라는 것은 어쩌면 이승만 정권 당시처럼 기독교 편향의 일이 벌어지더라도 불교인들을 포함한 여타 종교인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상태일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또한 "이승만은 종교를 정치권력 유지의 도구로 악용한 인물"이라면서도 "불교계가 독자적인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정권의 개입을 막지 못한 것이 미숙함이자 큰 과오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토론회에선 불교정화운동을 바라보는 발제자의 시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홍사성 주간은 정화운동의 배경과 관련 명분과 당위성을 소홀히 다루면서 정치적 역학관계에만 치중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부처님이 세운 본래의 교단, 승가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화는 더 큰 희생을 치렀더라도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과업이었다"며 "정화운동의 부작용을 이승만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역사인식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토론자였던 이주영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 공동대표(건국대 명예교수)는 이승만을 변호하는 입장에 섰다. 그는 사찰의 "영적인 분위기와 금욕적인 환경", "불교의 평화로움과 청명한 무욕사상" 등 이승만의 발언 기록을 제시하며 사실 불교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인물이었다고 해명했다. 물론 이승만의 불교는 '호감'이나 '정치적 수단'이었을 뿐, 신념은 되지 못했다. 이승만의 종교편향은 법에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양상이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저항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동국대 제2건학기금 20억원 쾌척

국제선센터 건립 위한 안국선원 지정 기탁금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김희옥 총장에게 전달

종단의 공익기부 재단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동국대 '제2건학기금' 20억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혜경스님, 이사장 자승스님, 김희옥 동국대 총장. 신재호 기자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김희옥 동국대 총장에게 '제2건학기금' 20억원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5월 안국선원장 수불스님(불교신문 사장)이 동국대 제2건학기금으로 50억원을 지정기탁함에 따라 이날 일부인 20억원을 전하게 됐다. 나머지 30억원은 추후 전달된다. 김희옥 총장은 "종단에서 교육불사에 늘 신경써주시고 지원해 줘 제2건학을 위한 리스타트프로젝트(RE-START Project)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은 "총장님께서 방학중에도 학교발전을 위해 진력하는 만큼 불사가 잘 진행되리라 믿는다"고 치하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원어민 강사 직접 지도

비구니 영어전문교육기관 국제불교학교 원서 접수

한국불교 세계화를 책임질 종립 비구니 영어전문교육기관 국제불교학교가 2012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지난 14일 국제불교학교 2기생 모집공고를 통해 "오는 8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제불교학교는 국외포교에 원력을 가진 기초영어가 가능한 조계종 비구니 스님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2012년 구족계 수지 예정인 사미니도 지원할 수 있다. 학인스님들에게는 수업료 지원과 3급 승가고시 자격 인정, 해외연수, 국제활동시 종단지원, 외국인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우선 임용 등의 특전이 주워진다.

모집인원은 10명이며, 면접은 10월12일 예정돼 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28일이며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용인 화운사 국제불교학교는 학인스님들이 학교 내에 상주하면서 원어만 강사와 전임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일상생활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2년 과정의 전문교육기관이다. 지난 3월 처음 개원해 현재 9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수학하고 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본·말사 주지인사

7월19일 종무회의 결과

범각스님 해남 대흥사
성인스님 평택 수도사
동관스님 진천 영수사
미수스님 대구 덕암사
원공스님 영주 관음암
대일스님 함양 영원사
보산스님 무주 안국사
경주스님 광주 신광사
혜관스님 서울 불교문학포교원
정각스님 강원 고성 미륵암
불암스님 연천 오봉사
호법스님 부산 발원사

동국대 서울·경주캠퍼스 '조계종 스님' 수시 전형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가 조계종 스님을 대상으로 수시전형을 실시한다.

서울캠퍼스 불교대학은 오는 8월1일부터 5일 오후5시까지 수시 1차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자격대상은 국내외 고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조계종 재적 스님으로, 모집인원은 25명이다. 입학을 희망하는 스님은 인터넷 동국대(www.dongguk.edu) 유웨이 (www.uwayapply.com) 진학사(www.jinhakapply,com)에서 접수한 후, 입학원서와 학교생활기록부, 계종 승적증명서 1부를 8월11일 오후5시까지 서울캠퍼스 입학처로 제출하면 된다. 입학사정관 면접은 오는 10월23일 진행되며, 장소는 10월14일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이와 함께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은 오는 9월15일부터 20일 오후6시까지 수시 1차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20명이다. 경주캠퍼스 지원자는 유웨이와 진학사 인터넷 접수 후 학교생활기록부와 조계종 승적증명서, 면접카드 등 관련 서류를 경주캠퍼스 입학관리실로 9월22일 오후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고사장 및 고사시간은 10월4일 이후 경주캠퍼스 홈페이지(web.dongguk.ac.kr)에 게시된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동국대학교 수시 승려전형 모집 요강

서울캠퍼스 수시 1차 원서접수 : 2011. **8. 1**(월) 09:00 ~ **8. 5**(금) 17:00

불교대학 - 불교계추천(승려) 전형

■모집인원 : 25명

■지원자격 :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불교조계종 재적 승려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단계(일괄) : 학생부 80% + 입학사정관면접 20%
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불교학부(승려) : 전 교과목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면접고사 성적에 의한 비교내신 성적을 산출하여 적용함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서류 제출 방법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동국대 www.dongguk.edu 유웨이 www.uwayapply.com 진학사 www.jinhakapply.com) 입학원서를 출력하여 해당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송부하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함[수험표는 고사 당일 반드시 지참]
가. 제출기간
• 등기우편 제출 : 2011. 8. 11(목) 17:00까지(8. 10(수) 소인까지 유효)
• 택배 또는 직접방문 제출 : 2011. 8. 11(목) 17:00까지 유효
나. 주소 :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입학처(학술관 1층) 수시모집 담당자 앞
다. 장소 : 서울캠퍼스 입학처(학술관 1층)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조회 및 추출에 동의하지 않거나, 학교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고교 출신자에 한함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1부
• 지원자 본인의 대한불교조계종 승적증명서 1부

■면접고사 일정 및 장소

구 분	고사일정	장 소
입학사정관 면접	2011. 10.23(일)	2011. 10. 14(금) 본교 홈페이지 공지(www.dongguk.edu) (고사시간, 고사장, 준비물, 유의사항 등 안내)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불교대학장 계 환

경주캠퍼스 수시 1차 원서접수 : 2011. **9. 15**(목) 09:00 ~ **9. 20**(금) 18:00

불교문화대학 - 불교계추천(승려) 전형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불교조계종 재적 승려

■전형방법
가. 학생부 성적(등급) 70% +면접고사 성적 30%
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불교학부(승려) : 전 교과목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면접고사 성적에 의한 비교내신 성적을 산출하여 적용함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공통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별도 제출 필요 없음)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지원자는 전형유형별 해당 서류 제출

■제출기간 : 2011. 9. 22(목) 18:00까지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 후(유웨이 www.uwayapply.com 진학사 www.jinhakapply.com) 해당 전형유형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택배 송부하거나 직접 제출

■불교계(승려)전형 제출서류
1. 대한불교조계종발행 승적증명서 1부
2. 면접카드 (소정양식) 1부 - 작성 후 면접고사 당일 제출
3. 검정고시 합격자 : 대입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4.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 졸업(예정)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외국어로 표기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공증 후 제출

■제 출 처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입학관리실

■유의사항
수험표는 사진을 부착한 후 면접카드와 함께 면접(실기)고사 당일 지참할 것

■면접고사 일정 및 장소
고사장 및 고사시간은 2011. 10. 4(화) 이후 경주캠퍼스 홈페이지(web.dongguk.ac.kr)에 게시된 내용을 참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장 유 진